

“...”

평화 통일, ‘實利 외교’로 앞당겨야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극적 방법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론은 역대 대통령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화두로서 동북아 국제 관계에 던지는 파장도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을 통하여 북한에는 도발을 경고 하고, 미국에는 대화를 촉구하며, 일본에는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일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 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두 나라간 환난지교(患難之交)의 역사를 언급했고, 이에 시 주석은 “역사적으로 양국 국민은 식민 침략에 항쟁했다”고 화답해 일제(日帝)에 대한 두 나라의 저항의 역사를 상기시켰다.

당시에 두 정상은 오는 10월 말, 11월 초를 포함한 서로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자는데 합의 했다. 마침내 한·중·일 3국의 협력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3자 정상회담의 꼭 막힌 한·일 양국의 외교적 물고도 터서 양국 정상회담 까지도 끌어낼 수 있을 가능성도 갖게 했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중 두 나라 정상이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에는 9.19공동

성명의 준수, 미국에는 6자회담의 촉구, 일본에는 한중일 3자회담 제의를 해 동북아 국가 외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 남북통일론은 2박 3일의 중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내 기자회견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언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해 사실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긴장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할 때, 그 귀결점은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평화통일’론은 확실히 새로운 것이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로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의 평화통일을 하나의 이슈’로 묶어 만든 것은 절묘한 방안이며, 암시하는 바가 의미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한·미·중·일·남·북 등 6자가 핵문제

대로, 통일문제 따로 이렇게 분리하여 생각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 고정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향

후부터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독트린이 6자회담에서나 UN 등 국제회의에서 하나의 아젠다로 등장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핵과 남북통일은 남 북 당사자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군사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난관이 첨착산중인 것도 사실이다.

한·중 정상이 제안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일정 이전에 9월 말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이어서 10월 1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우리로서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연속 되는 미·중,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박 대통령의 북핵을 합친 ‘평화통일’ 제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고, 잇따라 한중일 3자회담과 예상되는 한·일 회담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다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사자의 하나인 북한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도전 “북한 핵은 평화통일로 끝”이라는 새 화두를 어떻게 풀어 가는 지 잘 지켜볼 일이다.

社說

총무원장 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前 호계원장 범등 스님의 ‘염화미소법’ 등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종단 차원의 논의가 본격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9월 8일 열린 203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의 건’을 다루고 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위원장에는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계 스님이 선임됐다.

특위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해 종단 집행부, 분사 주지, 종회의원 등 21인으로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현행 간접선거 제도에서 ‘추첨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 前 호계원장 범등 스님은 ‘염화미소법’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선거제도 개선안인 ‘염화미

소법’은 중정 스님이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추천해 선출하는 ‘추첨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염화미소법’ 제안은 사실상 직선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조계종 총무원에게는 새로운 대안이다. 실제 삼화도량 측은 그동안 직선제를, 불교광장 측은 종직선제를 선거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었다.

현행 원장 선거제도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성과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급변, 정책모임 이익화, 직책 거래 등의 폐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도와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군이 추첨제를 골자로 한 ‘염화미소법’이 아니라도 선거제도는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을 잘 운영하고 구성원들이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관건인 만큼 종도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소통’으로 새로워질 BBS를 기대하며

지난 7월 22일 불교방송 이사회는 선상신 前 보도국장을 제9대 사장으로 선출했다. 선출 당시 내부 공채 출신이 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창사 25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 기대를 모았다.

선출 이후 2개월이 지난 9월 7일 선 사장은 기자들을 만나 근황을 전했다. 그간 선 사장은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 조계종 교구분사 주지 스님들을 예방하고 불교방송에 대한 관심을 부탁해왔다고 한다.

사실 선 사장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불교방송은 갈수록 어려워진 방송 미디어 환경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급감하는 라디오 광고 수익이다. 여기에 뿌리깊게 박힌 구성원들의 갈등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회사의 미래 비전을 느끼지 못한 젊은 인재들의 이탈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인지 선 사장은 기자 간담회 내내 ‘소통’을 이야기했다.

‘소통’을 위해 직원 전체 워크숍과 미디어 전문가 세미나, 외부 홍보를 위한 홍보 라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관계 인사가 참여하는 불교방송 비전 선포식도 계획 중이라는 복안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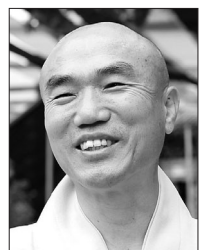
10월 8일 열리는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교방송 사장 취임식 사상 2번째로 참석하며, 9월 30일 직원 조회에서는 김규철 진흥원 이사장이 격려사를 하는 것도 소통을 위한 조치다.

불교방송은 한국 불교계에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전파 포교 매체이다. 그가 내세운 ‘부처님 사상을 전 세계에 전하고 세상을 맑게 하는 글로벌 미디어’란 소통을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

조계종 승가청규 의미와 과제

조계종이 9월 8일 수년간의 논의 끝에 최근 ‘대비권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를 공포하고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스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청규에 따른 삶을 통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포살본 발표 등 후속 절차 돌입



일감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청규는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종단 쇠신위원회라는 일시적이지만 기구를 만들어 만들어 낸 노력의 산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청규 제작 작업을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 숙성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부족함이 있더라도 새로운 청규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계속 만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청규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직급별로 자동차를 지정하기도 하는 등 세세하게 지정했다. 하지만 검소함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유행성과 탄력성을 주었다. 현실에서 융통성이 있는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나름대로는 귀한 청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계율을 반포 한 것처럼 선도적인 역할이 크다. 청규의 포살본을 현재 작업 중인데 반포하면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청규는 각 교구분사에 보내져 말사에까지 전달된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계율과 율장정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불교계에서는 청규 발표 이후 호별 행사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불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규는 약속, 약속을 지키길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이번 조계종의 청규는 인도의 계율과 중국의 청규 정신을 현대 사회에 맞게 펼쳐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특히 날로 멀어지는 승가의 위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가청규에는 토굴과 정당활동 금지 등 구체적인 생활규범이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규는 타율적인 강제수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약속이기 스님들이 자발적인 실천이 성패를 가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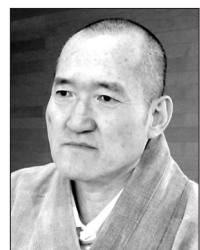
승가의 권위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스님들이기에 더욱 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쪽에서는 스님들이 이런 것도 지켜야 하나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세세한 규정이 승가의 권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불교의 중심은 청정한 스님들에게 있다. 재가불자들도 스님들이 계를 지키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지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모두가 건전한 감시자가 됨과 동시에 도움을 주는 도반으로 활동해야 한다.

작은 물 한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 사부대중의 작은 노력 하나 하나는 청정승가 확립과 위상 확대의 단초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식주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범등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최근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며 승가의 도덕·윤리적 의식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 조계종단 공식 승가청규가 발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표 자체가 아니라 실천과 행동이다. 승가청규를 어떻게 종단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고 실질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 지 고민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종단과 중앙의 역할이다. 발표된 내용 중 ‘실천의 장’에는 현대사회에서 승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담고 있다. 이 중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의식주, 소유와 소비 등서 근검절약,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물질 풍요 사회로 접어들며 스님들이 물질문명에 노출된 경우가 왕왕 있다. 고급스런 생활, 향락적 취미 등은 수행자가 지양해야 할 것들이다. 특히 삼보정재(三寶淨財, 신도들의 시주 혹은 스님들 재산을 가리킴)의 사유화는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다. 종단과 교구분사는 삼보정재가 개인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무소유(無所有)’는 시대를 막론하고 승려가 지켜야 할 최고 덕목이다. 무소유를 실천하면 승가의 정정이 바로 서질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중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입종 안내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